

제34호 대한도시가스(주) 조상태 대리



안전은 관심이며, 생활입니다

차창을 스치는 바람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하지만 파랗디 파란 하늘은 드높기 그지 없다. 이미 다 떨어져 버린 낙엽이지만 사복사복 부서지는 소리는 지난 가을의 추억을 일깨워준다.

지난 추억 떠올리며 낙엽길 따라 도착한 곳은 편리한 생활,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삶의 실현을 기업이념으로 서울의 동남부 일대와 경기도 과천, 하남 등 일부 지역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대한도시가스(주)이다. 이곳에서 보다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해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사랑의 안전을 실천하는 조상태 대리를 만나보았다.

이곳에 1995년에 입사하여 10여년간 안전업무를 해 온 조상태 대리는 이미 안전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얘기한다. 현장에서의 안전을 시작으로 지금은 안전통제팀에서 전직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무재해운동, 비상사태관리, 신시스템 도입 등의 업무를 맡아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서포트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기획해야 하기에 끊임없이 변화되는 현 사회의 상황을 항상 예의 · 주시하고 새로운 자료 습득에 만전을 기울인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발전하고 변화되는 안전을 추구하고자 함이다.

■ 안전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안전의 시작을 작은 관심으로 보는 그는 사소한 것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꼼꼼히 챙길 것을 강조한다. 특히, 회사 자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약 100만 세대의 안전도 함께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한다.

이에 지난 8월 2일에는 무재해 8배수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앞으로도 대한도시가스(주) 전직원이 하나되어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무재해 10배, 15배를 위해 끊임없이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항상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가 미소가 가득 담은 행복으로 대한도시가스(주)의 안전에 더 큰 행복을, 더 큰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